

시행 16년 신안군 버스공영제 연간 160억원 경제효과

경제성 분석 용역...대당 7200만원 지원, 민영·준공영제 보다 효율적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이하는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사업이 연간 1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민영제·준공영제에 비해서도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최근 개최한 '버스공영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 보고회에서 그동안 이용자 수 증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

한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내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와 국외 교통시설사업 성과지표 사례를 바탕으로,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9개 항목의 정량적 성과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용역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으며,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3억 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군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등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편익은 효과의 과다 상승을 막기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와 버스한대당 재정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7200만원, 민영제를 하는 목포시는 약 86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1억 570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신안군의 버스공영제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버스공영제 사업의 지속성 및 정당성이 확보되고, 높은 효율성도 확인돼 신안군 교통정책의 우수성이 입증됐다"면서 "앞으로 홍보 및 사례전파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이 최근 버스공영제 도입 16년째를 맞아 '버스공영제사업 경제성 분석 검토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신안군 제공>



오는 26일부터 해남군민광장에서 운영될 해남 광장갤러리 조감도.

“2천년 전 해남 만나보세요”

군민광장에 광장갤러리 운영

26일부터 마한~백제 유물 전시

“2천년 전 해남의 흔적을 느껴보세요” 해남군이 군의 역사를 담은 ‘광장 갤러리’를 오는 26일부터 해남군민광장에서 운영한다.

‘광장 갤러리’는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역사문화기반 조성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역사자원을 알리기 위해 운영기로 한 것이다.

광장갤러리에는 최근 시 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물·유적이 발굴된 복원면 거칠마토성, 송지면 근곡리 패총, 현산면 읍호리 유적 등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곳 유적들에서는 마한~백제시대 동북아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던 해남의 역사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갤러리는 3개 주제로 실물 유물의 전시와 체험 위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주제 내용은 거

칠마토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는 ‘광장갤러리’ 오픈기념 속보전: 고대 동북아 바닷길의 Hub Port·해남, 거칠마 유적’, ‘해남 문화유산 사진전: 역사, 보는 만큼 누린다’, ‘해남 출토유물 오감체험전: 역사야, 나도 만져볼래’ 등이다.

광장갤러리는 군민광장 음악분수 옆에 설치돼 12월 20일까지 운영된다.

해남군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준 운동도 전개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기증받을 계획이며, 기증받은 자료들은 2028년 개관 예정인 해남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 접수기간은 올해 11월 31일까지이며, 접수처는 해남군 문화예술과 역사문화기반TF팀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광장갤러리는 그동안 해남의 역사문화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발굴된 수많은 성과물의 일부를 공개하게 됐다”면서 “해남의 문화유산을 보면서 역사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이달까지 신청...내달 5일부터 검사

해남군은 심뇌혈관질환·신장질환·백내장 등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합병증을 조기

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꾸준한 관리가 우선시 되는 질환이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검사는 내달 5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관내 의료기관과 협업체 진행된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쿠폰을 가지고 협약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531-3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신안군은 신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등록 급식소 조리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지난 15일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집합 교육은 조리 종사자들의 위생 의식을 높이고 영양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째, 위생 이론 교육으로, 올바른 조리 방법과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둘째, ‘퀴즈로 알아봐요. 올바른 사용법’을 통해 급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위생 지식을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했다. 세번째는 영양 실습 교육에서는 신안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빵과 카야잼 크루아상을 직접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욱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무안군 초등생 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달 10일까지 남악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소중한 나·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초등학생 5-6학년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이해 및 감정

표현의 기회 ▲의사소통 기술을 돕는 독서치료 ▲대인관계 향상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내달 진행되는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청소년들이 협동 활동과 또래 집단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벌써부터 청소년들의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그림책을 통해 나의 감정을 찾아내고 간접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새로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개인·집단 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전화는 061-454-5284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회산백련지 야외 물놀이장 개장...내달 25일까지 운영

운영 요원 30명 채용 안전 만전

무안군 무안회산백련지 야외 물놀이장이 최근 개장했다.

개장 첫날인 지난 19일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100여 명이 방문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7회 연꽃축제와 여름방학,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장은 내달 25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축제기간에는 폐장시간이 오후 4시로 단축된다.

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 5명 포함 운영요원 30명을 채용하고 수영장 바닥 도색 및 수질 검사, 전기 안전점검, 그늘막 정비 등 개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회산백련지 내에는 수려한 경관과 어린이 놀이시설, 동물농장, 오토캠핑장, 백련카페 등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지난 6월 개장한 향토맨발길에는 나무 그늘이 조성돼 있어 한여름에도 쾌적한 맨발걷기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

한편 지난해 회산백련지 야외 물놀이장에는 하

루 평균 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고 어린이 풀, 유아풀, 파도풀을 비롯해 샤워실, 매점, 그늘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았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새우난초.



흰꼬리수리.

신안군 상징물 새우난초·흰꼬리수리로 변경

신안군은 군 상징물인 군의 꽃(군화)과 군의 새(군조)를 ‘신안새우난초’와 ‘흰꼬리수리’로 새로 변경했다.

군은 지난 6월 신안군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군화와 군조인 ‘해당화’와 ‘갈매기’를 새롭게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신안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로 결정된 군화인 ‘신안새우난초’는 멸종위기종 2급 희귀종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록된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군은

‘신안’이라는 명칭이 붙은 유일한 생물로서 신안군의 고유성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 흰꼬리수리는 신안군의 역동성과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상징물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군조로 사용되던 갈매기가 25개의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상징물로 독창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낯다른 길을 표방하며 독자적인 인상을 구축하기 위해 흰꼬리수리를 상징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월출산국립공원, 여름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탐방과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내달 11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 어류 포획, 취사, 야영 등이다. 적발 행 및 횡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들의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